

# 플립드 러닝 기반 팀 협동학습 적용 효과분석 연구

박복남<sup>1</sup>, 신미경<sup>2\*</sup>, 전해진<sup>3</sup>

<sup>1</sup>용인송담대학교 의료정보과 조교수, <sup>2</sup>나사렛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sup>3</sup>나사렛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Analysis about the effect of flipped learning based team activity

Boc-Nam Park<sup>1</sup>, Mee-Kyung Shin<sup>2\*</sup>, Hye-Jin Jeon<sup>3</sup>

<sup>1</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Medical Informatics, Yong-In Songdam College

<sup>2</sup>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rea Nazarene University

<sup>3</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rea Nazarene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는 전통적인 강의와 플립드 러닝 팀 협동학습 적용에 따른 수업경험, 의사소통 불안 차이와 학습만족도 및 학습지속의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간호대학생 54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전통적인 강의를 4주, 플립드 러닝 기반 협동학습을 4주 수행한 후 변수값의 차이를 paired t-test로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학습자의 수업경험은 정서적영역의 정서적 상태변인과 활동성 변인 모두 강의식 전통학습보다 플립드 러닝 기반 팀 협동학습 이후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t=-3.80, p=.000$ ;  $t=-3.35, p=.001$ ), 동기적영역의 변인인 수업활동조절( $t=-3.07, p=.003$ ), 자신의 능력( $t=-2.48, p=.016$ ), 수업참여 정도( $t=-3.25, p=.002$ )에서도 플립드 러닝 기반 팀 협동학습에서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플립드 러닝 기반 팀 협동학습이 의사소통 불안( $t=1.85, p=.069$ )을 개선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대학생 상대로 연구한 협동 학습 적용 결과 수업 만족도가 높았으며 지속적인 학습의 관심을 보였다.

주제어 : 거꾸로 학습, 간호대학생, 의사소통, 수업만족도, 협동학습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xplore the difference in communication anxiety and class satisfaction after taking the traditional lecture and flipped learning lecture. Fifty four nursing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study design was 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4 weeks traditional lecture and 4 weeks flipped learning lecture was applied. Flipped learning was ineffective in improving communication anxiety ( $t=1.85, p=.069$ ) of nursing students. But emotional state variables and activity variables in the emotional domain were significantly higher after taking the flipped learning lecture( $t=-3.80, p=.000$ ;  $t=-3.35, p=.001$ ). In addition, all of the variables were higher in the flipped learning based team, in the control of the class activities ( $t=-3.07, p=.003$ ), personal ability ( $t=-2.48, p=.016$ ), and class participation( $t=-3.25, p=.002$ ). Flipped learning is therefore considered to be effective in training nursing students. This study suggested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flipped learning and learners' satisfaction.

Key Words : Flipped learning, Nursing student, Communication, Personal satisfaction, Cooperative learning

\*Corresponding Author : Mee-Kyung Shin(withblue@kornu.ac.kr)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환자의 곁에서 하루에 24시간 동안 직접 간호와 간접 간호를 수행하는 의료진이다. 이에 간호사의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하여 환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은 물론 환자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며[1], 환자는 의사소통을 통해 간호사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인지를 평가하게 된다[2]. 의사소통역량은 간호현장에서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당면한 문제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직접 간호와 정서적 지지, 교육과 상담 제공, 전문직 간 협력과 정보 교류에 필수적이다[3]. 의사소통술은 간호사가 환자와 치료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수단이며, 간호를 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수요소라 하였다[4]. 아울러 의사소통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 정도가 높았는데 이는 대학생들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구성원과 소통을 잘 할수록 대학 생활을 의미 있게 수행한다는 뜻이다[5]. 이처럼 의사소통 능력은 임상 간호 수행 현장에서나 대학 생활 적응현장에서나 현장 적응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 역량이다. 의사소통 능력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의 의도로 타인에게 정확히 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6],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 의도한 대로 의사전달이 되지 않으면 상대방과의 갈등이 발생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간호대학생이나 간호사들은 상대의 부정적 반응이나 비평에 대처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조리있게 전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였다[7]. 이처럼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면,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임상현장에서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전달하지 못하여 억누르게 되고, 이는 결국 전문가로서의 자신감 상실과 직무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8,9]. 특히 대중 앞에서 하는 발표, 회의 시 발언, 그룹 토의, 일상적 대화 등 여러 사람 앞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를 의사소통 불안이라 하는데[10] 이것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어려워진다.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기에 많은 간호학과에서는 간호학생의 인계 기술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과목을 개설을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한국간호교육평가원[11]에서도 치료적 의사소통술을 간호교육 인증 프로그램의 성과에 포함시켜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주요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여러 교수법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교수법이 강의식에서 학습자 주도 교수법으로 바뀌면서 플립드 러닝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사전학습과 동료들과의 상호작용, 토론 등을 통하여 역동적이고 상호적인 수업환경으로 전환하는 실천적 수업방식으로 [12] 플립드 러닝은 사전학습을 통해 핵심내용을 미리 공부하고 오기 때문에 수업시간에는 좀 더 다양한 문제를 접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고 동료 간 토론의 시간이 부여되어 의사소통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교수법이다. 선행 학습 시간이 부담이 된다는 보고가 있기는 하나, 플립드 러닝 교수법을 통해 학습자는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고, 지식활용역량이 개발되며, 능동적으로 학습하여 학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3]. 팀 협동학습은 플립러닝을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서,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활용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13]. 대학교육에서는 협동학습, 그룹 토론, 역할놀이, 협력 프로젝트와 같은 형태로 플립드 러닝의 팀활동이 적용되고 있는데[14], 이러한 학습 구조는 학습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상호 의존적으로 긍정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갈등을 관리하는 기술이 향상되고, 신뢰감이 형성되는 등 소통적 측면에서의 높은 효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15]. 거꾸로 학습인 플립드 러닝의 효과적 적용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제학습 1주 전에 학습자들끼리 팀을 구성하도록 하여 사전 학습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함께 학습할 수 있고, 더불어 교수자가 직접 참여하여 학습의 방향성을 지도하며 운영하는 형식의 방법을 도입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교수법의 적용으로 전통적 강의법과 플립드 러닝 기반 팀 협동학습의 적용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경험, 의사소통 불안정도의 차이를 분석하여 간호사의 의사소통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또한 학습자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수법 개발과 적용을 위해 시도하였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노인간호학 수업에 플립드 러닝 기반 팀 협동학습을 적용한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들의 수업경험, 의사소통불안정도, 학습만족도 및 학습지속의향을

평가하고, 교수학습방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강의식 전통학습법과 플립드 러닝 기반 팀 협동학습에 따른 수업경험, 의사소통불안 정도 차이를 파악한다.
- 3) 플립드 러닝 기반 팀 협동학습에 따른 학습만족도 및 학습지속의향 정도를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간호학 수업에 플립드 러닝 기반 팀 협동학습을 적용한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들의 수업경험, 의사소통 불안정도, 학습만족도 및 학습지속의향을 평가하여 교수학습방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시차설계 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C도시 소재학교 간호학과 4학년 학생 54명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는 본 연구에 참석하는 대상자에게 연구 이외에 연구결과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고 연구 중간에 철회의 의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된 설명문을 배포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수업경험

본 연구에서 수업경험은 미국 시카고대학의 Csikszentmihalyi와 Schneider(2000)[16]가 개발한 도구로 Peterson과 Miller(2004)[17]가 수정보완하여, 최은영(2007)[18]의 연구에서 변역, 역변역을 실시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인지적 영역과 정서적 영역, 동기적 영역의 3영역으로 구성되며, 총 25문항을 포함한다. 각 영역의 문항들은 7점과 9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 2.3.2 의사소통 불안

학생들의 의사소통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된 McCroskey, Beatty, Kearney, & Plax(1985)[10]의 Personal Report of Communication Apprehension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대중 앞에서의 발표, 회의 시 발언, 소집단 토의, 일상적인 대화 등 각기 다른 네 가지 상황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불안을 측정하게 된다. 이 네 가지 상황 중 각각의 분류에서 18점 이상이 나타나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 불안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24점 이상이면 의사소통 불안이 매우 심한 것으로 간주되나, 반대로 12점 이하이면 의사소통 불안이 거의 없는 것이다. 검사를 통해 나온 총점이 65점이면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80점 이상이면 의사소통 불안이 매우 심한 것으로, 그리고 총점이 50점 미만이면 의사소통 불안이 매우 낮은 것으로 해석한다[10].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이었다.

#### 2.3.3 학습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학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hin(2003)[19]이 사이버대학생을 위해 개발한 도구를 Jo(2013)[20]가 번안하여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전반적 성취감, 수강에 대한 보람, 타인의 추천의향 등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6$ 이었다.

#### 2.3.4 학습지속의향

본 연구에서는 학습지속의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강의 수강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1개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20],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지속의향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2.4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9년 3월 4일부터 2019년 4월 22일까지 8주 동안 진행된 것이며, 본 과정은 실제 2학점 15주 이수과정을 간호학과 현장실습교육운영을 위한 특성을 반영하여 주 4시간 8주 과정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첫 4주 중간고사 실시까지는 모든 대상자를 강의식 전통학습과정을 적용하여 실시한 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후 기말고사까지 4주 동안은 플립드 러닝 기

반 팀 협동학습 과정을 적용한 후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4명의 학생들은 4~6인으로 자유롭게 1개조를 구성하여 총 12개조로 편성되어 플립드 러닝 기반 팀 협동학습에 참여하였다. 팀원의 구성은 교수가 제시한 6개의 학습주제 중 학생들이 희망하는 주제를 각 1개씩 선택하여 자유롭게 구성하였다. 주제 1개에 대해 2개 팀이 학습 및 발표 담당을 하였으며, 같은 주제를 발표한 2개 팀을 대조 평가할 수 있게 하였으며 플립드 러닝 기반 팀 협동학습 수행에서 주제 발표 팀 외의 다른 모든 팀도 주제관련 자료 및 정보를 인터넷과 참고도서 등을 활용하여 검색하고 정리하였다. 이때 교수는 자료조사와 내용이해, 발표주제 등에 관한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 방향을 제시하였고, 지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2) 강의식 전통학습법과 플립드 러닝 기반 팀 협동학습에 따른 수업경험과 의사소통불안정도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 3) 플립드 러닝 기반 팀 협동학습을 통한 학습만족도와 학습지속의향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여학생이 46명으로 전체의 85.2%였다. 평균 나이는 21.94세이고, 자택에서 통학하는 학생이 17명(31.5%), 자취 22명(40.7%), 기숙사 15명(27.8%)이었다. 플립드 러닝 학습경험이 없는 학생은 12명(22.2%)이었고 그 외 모두 1회 이상 학습경험이 있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54)

variables	classification	n(%)	Mean(SD)
gender	M	8(14.8)	
	F	46(85.2)	
age	yr		21.94(1.36)

living in	Home	17(31.5)	
	Live apart	22(40.7)	
	Dormitory	15(27.8)	
experience of flipped learning	none	12(22.2)	
	have one	15(27.8)	
	have twice	5(9.3)	
	more than three times	17(31.5)	
	non response	5(9.3)	

3.2 수업경험

Table 2의 결과에 따르면, 수업경험에 대한 결과에서 플립드 러닝 기반 팀 협동학습은 강의식 전통학습과 비교하였을 때, 인지적 영역 내의 인지적 효율성과 인지된 학습 변인 모두 평균값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22, p=.826$ ). 정서적 영역에서 자존감 변인은 전통적 학습 평균값 6.21점(1.32)보다 플립드 러닝 기반 팀 협동학습 평균값이 6.45점(1.39)으로 높게 나타났다(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t=-1.23, p=.221$ )). 그러나 정서적영역의 정서적 상태변인과 활동성 변인 모두 강의식 전통학습보다 플립드 러닝 기반 팀 협동학습이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3.80, p=.000$ ;  $t=-3.35, p=.001$ ). 또한 동기적영역의 모든 변인이 플립드 러닝 기반 팀 협동학습에서 평균이 높았으며, 수업활동조절( $t=-3.07, p=.003$ ), 자신의 능력( $t=-2.48, p=.016$ ), 수업참여 정도( $t=-3.25, p=.002$ )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체감난이도 변인은 플립드 러닝 기반 팀 협동학습이 평균값이 낮아 학습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2.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class experience of the subjects (N=54)

Variables	Classification	Traditional lectures of teachers	Flipped learning based team activity	t(p)
		Mean(SD)	Mean(SD)	
cognitive domain	cognitive efficiency	6.36(1.29)	6.35(1.59)	.22 (.826)
	perceived learning	7.39(1.10)	7.41(1.10)	-.10 (.916)
emotional domain	self-esteem	6.21(1.32)	6.45(1.39)	-1.23 (.221)
	emotional state	4.79(1.00)	5.32(1.15)	-3.80 (.000)
	activity	4.74(1.06)	5.18(1.09)	-3.35 (.001)

motive domain	importance of task	6.61(1.39)	6.92(1.50)	-1.68 (.098)
	internal motive	5.46(1.99)	5.80(2.20)	-1.15 (.255)
	control of class activities	5.61(1.37)	6.22(1.66)	-3.07 (.003)
	difficulty in feeling	4.91(1.36)	4.66(1.69)	.00 (.391)
	one's own ability	5.45(1.35)	5.87(1.37)	-2.48 (.016)
	degree of participation in class	5.15(1.36)	5.66(1.02)	-3.25 (.002)

### 3.3 의사소통 불안정도

의사소통 불안정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모든 변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 $t=1.85, p=.069$ ) 전통식학습(73.98점)에 비해 플립드 러닝 기반 팀 협동학습(71.33점)이 의사소통 불안의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communication anxiety of the subject (N=54)**

variables	traditional lectures of teachers	Flipped learning based team activity	t(p)
	Mean(SD)	Mean(SD)	
group discussion	18.96(5.93)	18.68(5.65)	.55 (.583)
remarks at a meeting	16.11(4.05)	15.37(4.07)	1.54 (.128)
everyday conversation	17.63(3.99)	16.87(3.77)	1.46 (.148)
a public announcement	20.92(4.54)	20.10(4.84)	1.94 (.058)
total	73.98(15.23)	71.33(14.55)	1.85 (.069)

### 3.4 학습만족도 및 학습지속의향

Table 4에 따르면, 플립드 러닝 기반 팀 협동학습의 만족도는 5점 척도 평균 4.04점(.73)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본 학습과정을 계속할 학습지속의향은 3.81점(.99)로 나타났다.

**Table 4. Learning satisfaction and continuation of Flipped learning based team activity (N=54)**

	Min	Max	Mean	SD
Learning Satisfaction	2.38	5.00	4.04	.73
Learning Continuation	2	5	3.81	.99

## 4. 논의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대부분은 여학생이 46명으로 전체의 85.2%이었고 평균 나이는 21.94세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대부분은 플립드 러닝 학습경험이 있었다(77.8%). 이는 강의식 전통학습에서 학습자 중심 교수법으로 변화되고 있는 교육현장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수업경험에 대한 결과에서 정서적 영역의 정서적 상태변인과 활동성 변인 모두 강의식 전통학습 보다 플립드 러닝 기반 팀 협동학습이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3.80, p=.000; t=-3.35, p=.001$ ). 또한, 동기적 영역의 모든 변인이 플립드 러닝 기반 팀 협동학습에서 평균이 높았으며, 수업활동조절( $t=-3.07, p=.003$ ), 자신의 능력( $t=-2.48, p=.016$ ), 수업참여 정도( $t=-3.25, p=.002$ )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플립드 러닝 기반 팀 협동학습을 통해 학습자 개개인이 달성하려는 학습목표를 집단 구성원 전체의 공동목표로 설정하여 학습활동을 협동적으로 수행함으로써[21], 정서적, 동기적 측면은 물론 인지적 측면에도 전통수업에 비해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또 다른 선행 연구에서도 플립드 러닝에 대한 학생들의 수업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22], 팀학습에서 학습자들은 동료들간의 관계에서 힘을 얻고, 학습활동과 실생활과의 연계성이 높아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한다고 하여, 이러한 교수법의 효과가 지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체감난이도 변인에서 플립드 러닝 기반 팀 협동학습의 평균값이 낮아 학습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 불안에 대한 결과는 모든 변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강의식 전통학습(73.98점)에 비해 플립드 러닝 기반 팀 학습(71.33점)의 의사소통 불안에 대한 평균값이 낮았다. 선행연구에서는 간호학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본간호학 실습 교과목에 플립드 러닝을 7주간 적용하여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의 변화를 확인하였는데, 플립드 러닝 적용 후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향상에는 효과가 없었으나, 문제 해결 능력과 자기주도학습 능력에는 유의한 향상을 보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23]. 하지만 플립드 러닝을 적용한 수업에서 학습자는 사전 학습을 통해 자신이 습득한 지식을 이해하여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설명하고, 동료들 간의 토의를 통해 이해한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발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대중 앞에서의 발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이 지속되고 반복될수록 의사소통에 대한 불안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 아울러 학습자는 능동적인 역할을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의사소통 불안 수준과 관련하여, 한 선행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설계와 유사하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사정 교과목에서 6회차에 걸쳐 플립러닝을 운영한 결과 실험군의 의사소통 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는데, 이를 위해 팀원 간의 상호작용과 조직 문화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고 하였다[24]. 따라서 협동학습에서의 학습환경으로서 팀 구성 요소를 고려한 플립드 러닝 교수법의 효과를 확인하는 반복 연구의 수행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의식 전통 학습법과 협동 학습법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협동학습이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하였고[25],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한 협동학습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증진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26]. 이에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불안을 줄이고,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상자와 조직 구성원 간 관계증진을 도모하는 플립드 러닝 기반 팀 협동학습의 적극적인 적용을 권장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플립드 러닝 기반 팀 협동학습의 만족도는 5점 척도 평균 4.04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본 학습과정을 계속 하고자 하는 학습지속의향은 3.81점이었다. 이는 대학생에게 협동학습을 적용한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사고방식과 생각의 차이 경험, 협동심과 배려,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인한 긍정적 경험으로 지속적인 학습의지가 강화되었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5].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플립드 러닝 기반 팀 협동 학습은 학습자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학습의 동기적 요소를 고취시키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학습자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러한 교수법의 적용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팀 협동학습을 기반으로 한 플립드 러닝을 적용하여 간호학과 재학생들의 수업경험과 의사소통 불안정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 결과를 간호사의 의사소통 역량 및 학습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학습자의 수업경험과 관련된 결과에서는 정서적 상태 변인과 활동성 변인이 모두 팀 협동학습 기반 플립드 러닝 교수법을 적용하였을 때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수업 동기유발과 관련된 영역에서도 기존 강의실 교수법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플립드 러닝을 적용한 교수법을 적용한 수업의 간호학생의 의사소통 역량 및 학습만족도를 향상시킬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교수법의 활용을 위한 교수자의 교육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활용 및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단일군 설계로 수행되어 연구 결과의 해석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교수법 활용에 대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 [1] P. Salmon. & B. Young. (2009). Dependence and caring in clinical communication: The relevance of attachment and other theories.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74(3), 331-338.
- [2] M. Coffey & J. Hewitt. (2008). 'You don't talk about the voices': Voice hearers and community mental health nurses talk about responding to voice hearing experiences,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7(12), 1591-1600.
- [3] H. M. Son, H. S. Kim, M. H. Koh & S. J. Yu. (2001). Analysis of the communication education in the undergraduate nursing curriculum of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3), 326-434.
- [4] G. J. Lee. (2011). *Communication and nursing (3rd ed.)*. Seoul : Shin kwang publishing co.
- [5] M. S. Kim. (2016). Communication Education for the Improvement of Collegiate Interpersonal Skills, *Hanminjok Emunhak*, 73, 203-233.
- [6] S. Trenholm & A. Jensen. (2008). *Interpersonal communication (6th ed.)*.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7] S. K. Hwang & Y. J. Lee. (2015). Interpersonal

-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social anxie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4), 518–527.
- [8] N. O. Cho, Y. S. Hong & H. S. Kim. (2001). Study of nurse's interpersonal conflict and communica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7(2), 369–378.
- [9] J. H. Kim & J. S. Lee. (2013). The experience of clinical nurses' interpersonal conflict.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14(1), 70–80.
- [10] J. C. McCroskey, M. J. Beatty, P. Kearney & T. G. Plax. (1985). The content validity of the PRCA-24 as a measure of communication apprehension across communication contexts. *Communication Quarterly*, 33(3), 165–173.
- [11]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5). *Accreditation of nursing education guideline*. <http://kabone.or.kr/kabon02/index04.php>
- [12] F. Ozdamli & G. Asiksoy. (2016). Flipped Classroom Approach. *World Journal on Educational Technology: Current Issues*, 8(2), 98–105.
- [13] E. G. Kim. (2016). Application of flipped learning in database cours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20(4), 847–856.
- [14] H. J. Han, C. Lim, S. L. Han & J. W. Park. (2015).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integrating online and offline modes of flipped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31(1), 1–38.
- [15] J. Leem. (2016).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for flipped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A case study.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32(1), 165–199.
- [16] M. Csikszentmihalyi & B. Schneider. (2001). *Becoming adult: How teenagers prepare for the world of work*. New York : Basic Books.
- [17] S. E. Peterson, & J. A. Miller. (2004). Comparing the quality of students' experiences during cooperative learning and large-group instruc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7(3), 123–133.
- [18] H. Y. Choi. (2007). *Learners' Experiences during Cooperative Learning in a College English Reading Classroom*.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honnam.
- [19] N. M. Shin. (2003). Transactional presence as a critical predictor of success in distance learning. *Distance Education*, 24(1), 69–86.
- [20] S. A. Jo. (2013).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online course experience and level of self-directed learning strategy on learning satisfaction and persistence*.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ju.
- [21] R. T. Johnson, D. W. Johnson & B. Bryant. (1973). Cooperation and competition in the classroom.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74(3), 172–181.
- [22] Y. Lee. & S. Youn. (2017). Reconstructing the Meaning of Flipped Learning by Analyzing Learners' Experiences.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20(1), 53–62
- [23] Y. S. Choi & J. Y. Kim. (2018). Effects of flipped Learning in core competencies of nursing students: based on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19), 1163–1182.
- [24] Y. S. Lee & Y. Eun. (2016). The effect of the flipped learning on self-effica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4), 567–576.
- [25] N. Baghcheghi, H. R. Koohestani & K. Rezaei. (2011). A comparison of the cooperative learning and traditional learning methods in theory. classes on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skill with patients at clinical settings. *Nurse education today*, 31(8), 877–882.
- [26] Y. H. Kim, & M. S. Kang. (2015). The effects of action learning in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9(4), 211–243.

박복남(Boc-Nam Park)

[정회원]



- 2006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07년 3월 ~ 2011년 2월: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용인송담대학교 의료정보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기초의학, 교수학습법
- E-Mail : parkbbn01@ysec.ac.kr

신미경 (Mee-Kyung Shin)

[정회원]



- 200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나사렛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노인간호, 성인간호
- E-Mail : withblue@kornu.ac.kr

전혜진(Hye-Jin Jeon)

[정회원]



- 201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나사렛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응급간호, 간호교육
- E-Mail : hjjeon@kornu.ac.kr